

Dubai유, 34.71달러로 하락세 지속

석유공사, 이라크 석유 수출재개로 안정 ... Brent유는 40.8달러로 상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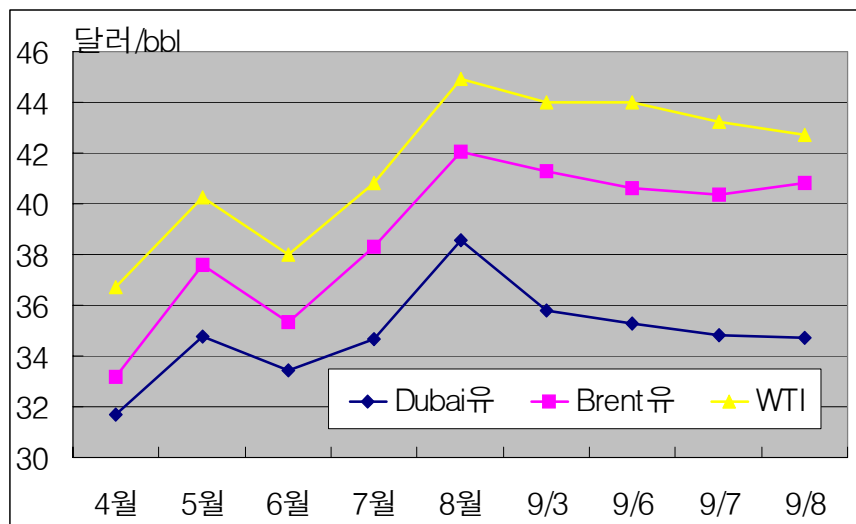
국제유가가 이라크 북부 지역의 원유 수출재개 소식이 전해지면서 하락 기조를 유지했다.

한국석유공사에 따르면, 9월8일 현지에서 거래된 미국 서부텍사스중질유(WTI)는 전날보다 0.53달러 떨어진 배럴당 42.71달러를 기록했으며 중동산 Dubai유도 34.71달러로 0.09달러 하락했다.

뉴욕상업거래소(NYMEX)의 WTI 10월물과 런던 국제석유거래소(IPE)의 Brent유 선물가격은 각각 전날보다 0.54달러, 0.37달러 내린 42.77달러, 40.39달러에 거래를 마쳤다.

그러나 국제유가 하락 요인이 반영되지 못한 북해산 Brent유 현물가격은 40.83달러로 0.46달러 상승했다.

국제유가 추이(2004)



석유공사는 “국제유가가 허리케인 출현으로 멕시코만 지역의 석유 생산 중단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장 초반 상승 국면을 보였으나 이라크 북부 키르쿠크 유전의 석유 수출이 일부 재개됐다는 소식이 알려지면서 하락세로 반전했다”고 설명했다.

<화학저널 2004/09/10>